

# 국내외 역차별 해소 · 방송계 갑질 청산

### 방통위,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 이용자 참여 · 권리 강화 등 10대 정책과제 발표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규제와 방송계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청사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4기 방통위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대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산업 활성화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 방송의 역할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변별력이 낮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이다. 미디어의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 폰·PC를 포함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을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청자 권리 전담기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7곳에서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 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의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섯 번째 정책과제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환경 조성이다. 방송사의주주제자사, 흡수합사·납입합체, 플랫폼사업자·중소 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정책과제는 방송인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이다.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중심으로 편중된 방송인류 시장을 동남아·이슬람권까지 다변화하는 등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정책과제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다. 해외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이나 삭제 등을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해의 정부와의 공동 대응 및 국제 공조수사 등을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편에 대해서도 의주제자 편성의무, 의무수출 제도 등 그 간의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홉 번째 정책과제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다.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래밍 편집,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열한 번째 정책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다.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 법규위반 지속 시 서비스 일시 중지조치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쟁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 전주상공회의소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6일 전주상의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기업체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용진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절차,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과다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업체 담당자는 연말정산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을 이해하게 되어 앞으로 연말정산 담당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맞춤형 패션소재 기술력 향상 논의

### ECO융합섬유연구원,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수혜업체와 상담회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김인관)에서는 지난 5일 본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유)오가나코리아 등 5개 기업을 올 한해 동안 개발한 소재에 대한 사업성과 발표 및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은 융합섬유연구이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들여 지난 1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으로, 우수한 소재개발력을 갖춘 글로벌 벤더기업에 연계되어 있는 수요맞춤형 패션소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패션소재 및 패션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맞춤형 정보제공, 시제품개발 및 제작, 수혜확대 맞춤형 프로모션을 지원하였다.

2017년 참여기업으로는 ㈜성실섬유(유)오가나코리아, ㈜스포리, ㈜우성에프엔티는 Cotton 외에 Modal, Tencel, Cotton/Modal 등의 친환경 후면 컬러멜랑지저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의 차별화 니트원단을 개발하여 기존에 면과 면혼방사가 가지는 부드러운 감성을 극대화하고 기본 물성을 개선, 차별화된 외관과 터치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니트원단을 개발했다.

㈜KJ USA는 피부에서 나오는 땀을 빨아들여 옷 바깥으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흡습속건 기능이 일반 면보다 14배 가량 뛰어난 친환경 기능성 소재인 Coolmax 원사를 사용하여 Seamless 편직공법을 통한 스포츠 웨어 및 악세사리류 등 전락아이템을 개발했다.

융합섬유연구이 수행한 "2017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들은 "제품 기능성 성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지난 소재와 융복합하여 이전 제품보다 뛰어난 고부가가치 기능성 유아용 내의류 원단을 개발하였다." (유)오가나코리아는 천연소재인 셀룰로오스 원사와 유기농소재인 Organic Color Melange, GRS 인증 리사이클섬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컬러를 구현하는 고급화된 유아용 의류 제품을 개발하여 친환경 웰빙 트렌드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주)스포리는 걸면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하고 피부에 닿는 면은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함으로써 땀을 순간적으로 배출하여 쿼드라이를 통한 쾌적성과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양면니트제품을 만들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능성제품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스포츠 등산레저용, 헬스 요가용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시장 매출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성에프엔티는 Cotton 외에 Modal, Tencel, Cotton/Modal 등의 친환경 후면 컬러멜랑지저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의 차별화 니트원단을 개발하여 기존에 면과 면혼방사가 가지는 부드러운 감성을 극대화하고 기본 물성을 개선, 차별화된 외관과 터치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니트원단을 개발했다.

㈜KJ USA는 피부에서 나오는 땀을 빨아들여 옷 바깥으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흡습속건 기능이 일반 면보다 14배 가량 뛰어난 친환경 기능성 소재인 Coolmax 원사를 사용하여 Seamless 편직공법을 통한 스포츠 웨어 및 악세사리류 등 전락아이템을 개발했다.

융합섬유연구이 수행한 "2017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들은 "제품 기능성 성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지난 소재와 융복합하여 이전 제품보다 뛰어난 고부가가치 기능성 유아용 내의류 원단을 개발하였다." (유)오가나코리아는 천연소재인 셀룰로오스 원사와 유기농소재인 Organic Color Melange, GRS 인증 리사이클섬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컬러를 구현하는 고급화된 유아용 의류 제품을 개발하여 친환경 웰빙 트렌드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주)스포리는 걸면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하고 피부에 닿는 면은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함으로써 땀을 순간적으로 배출하여 쿼드라이를 통한 쾌적성과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양면니트제품을 만들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능성제품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스포츠 등산레저용, 헬스 요가용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시장 매출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익선=장영일 기자

## 하림, 경영품질부문 5년 연속 대상

### 품질 · 위생 등 노력 결실

글로벌 닭고기 전문 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혁신성을 통해 경쟁력 높이고 고객만족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주)하림은 지난 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17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경영품질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고객, 직원,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가치를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이미지를 구축한 기업에게 주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 1986년 창립 (주)하림은 올해로 31년 동안 품질과 위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내 최초 유압식 동물복지 시스템 도입과 최첨단 도계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소지자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하림은 2014년 7월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검역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 급속 동결한 즉식삼계탕, 데토르트 고향삼계탕 두 종류의 삼계탕 제품을 국내 축산물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2016년 06월 중국 시장에 삼계탕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익선=장영일 기자

## 하이트진로음료, 차음료 '블랙보리' 국내 첫 출시

하이트진로음료는 최상급 보리 품종인 검정보리로 만든 차음료 '블랙보리'를 출시하고 국내 차(茶)음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제품 '블랙보리'는 국내 최초로 100% 국내산 검정보리를 사용한 무색소, 무카페인, 무살균의 보리차 음료다. 붉은 검정보리를 단일 추출하는 공법을 통해 잡미와 쓴맛을 최소화하고 보리의 깊고 진한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주원료인 검정보리는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산업을 추진 중인 보리 신품종으로 전라남도 해남군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일반 보리에 비해 향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4배 이상 함유하고 식이섬유가 1.5배 많아 보리 품종 중 최고 품종으로 꼽히고 있다.

520ml 페트와 1.5리터 총 2종으로 전국 대리점에 이날부터 출시되며 13일 이후에는 전국 편의점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520ml 편의점 기준 1,500원이다.

경쟁제품과 가격은 동일하지만 제품의 용량을 20ml 증량한 520ml로 출시해 용기도 차별화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번 제품으로 기존 보리차 시장을 비롯해 이노작업이 있는 옥수수수염차, 허브차 등 주요 차음료 수요층까지 흡수해나갈 계획이다.

'블랙보리'를 기획하고 진두 지휘한 조은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의사는 과거 웅진식품에서 하늘보리와 아침햇살 등 곡물차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기도 하다.

/뉴스



## 자산매각공고

사 건 2015회합 30호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태형

채무자 주식회사 태형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매각 대상 자산의 표시

물건번호	부동산번호	부동산 주소/물건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1	1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	대	638㎡	태형
	2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1	대	184㎡	
	3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3	대	148㎡	
	4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의 2필지	주박	182.2㎡	
2	1	전북 익산시 무송동 1108 부영아파트 제504동 제1층 제102호	아파트	81.823㎡	태형

※ 물건번호 1, 중 부동산번호 4, 부동산에는 제시된 건물 포함

### 2. 매각방법 및 일시, 장소 등

가.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나. 매각조건  
1)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2)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서 최고가 이상으로 제일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1) 입찰마감일, 최저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물건번호	회차(입찰마감일시)	최저입찰가격(원)	%	비고
물건번호 1	1회차 2017. 12. 11. 14:00	138,797,000원	100%	매각시 까지 도착분 에 한함
	2회차 2017. 12. 11. 15:00	97,157,900원	70%	
	3회차 2017. 12. 11. 16:00	68,010,530원	49%	
물건번호 2	1회차 2017. 12. 11. 14:00	80,000,000원	100%	
	2회차 2017. 12. 11. 15:00	64,000,000원	80%	

※ 입찰보증금은 낙찰가의 10%  
-개찰은 각 회차별 마감시 이후 10분에 실시하며, 희망자는 원할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2017. 11. 30. 회생채무자 (주)태형의 관리인 유병호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